

8. 주거 Housing



한 가족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질 않는다. 온 가족이 한 거주지에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안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싱글들이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하면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문화권에서 온 두 사람이 같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매우 다른 가정환경과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팀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온 두 사람이 주거를 함께 할 때에는, 그들의 문화적 가치 조차 같을 수 없다. 같은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차이를 갖게 되며, 더 많은 충돌을 빚게 된다.

아래의 예들은 다양한 거주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피해야 할 위험에 대한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은 당신의 선택

만약 당신이 속한 단체가 당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 어떤 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또는 그렇게 미묘하지 않은)도 없어서 당신이 혼자 살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 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방해 받기 싫고,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며, 당신의 고국이 사생활을 중요시 여긴다면, 아마 당신은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항상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함께함/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 왔다면, 당신은 혼자 사는 것이 큰 스트레스임을 알게 된다. 만약 혼자 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당신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안을 유지하는 일과 잔디를 관리하는 것 등에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일이 요구되는지 몰랐을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예산에 무리를 주어서 여유자금 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가 오를 때 함께 살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

친구와 함께 사는 것, 공통의 생각

만약 당신과 당신의 친구 둘 다 주택이나 큰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원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정이 지속되는 한 가능할 것이다. 만일 당신들 모두가 많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는 재정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당신들이 이미 친구가 되었고, 양쪽 모두 생각이 같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불행히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속적인 접촉으로 우정이 식어버릴 수 있다. 사실, 함께 사는 것이 우정을 파괴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과는 꽤 다르다. 당신의 친구는 요리와 청소를 돕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말하는 것만 좋아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다 값비싼 가구를 사자는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정이 신체적인 친밀감을 이루는 데까지 점차 변할 수도 있다.

‘아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선교단체의 ‘제안’, 당신의 ‘선택’

위의 인용부호는 그 단어들이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혼자 살 수도 있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몇 사람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아는 사람이 단지 2주 전에 만난 사람이라면, 그 제안은 당신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대안이 훨씬 더 나쁘다는 이유로 당신이 선택한 것은, 그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심리적 저항을 드러낸다. 즉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쪽으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에덴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동산 안에 있는 한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 어떤 열매든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남자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원했고, 그렇게 했다(창2-3장). 또 다른 예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있던 여러 개의 장난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다른 아이가 장난감 하나(더 이상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다)를 집어 들면, 그 아이는 바로 그 장난감을 원하게 된다.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단체의 ‘요구’, 단체의 ‘선택’

비록 이것은 가끔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만일 당신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도록 단체에서 요구하고, 단체가 당신과 함께 살 사람을 직접 선정해준다면, 당신은 그 낯선 사람과 즐겁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

만일 당신이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애기간을 거쳐서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신혼부부보다 더 오랜 기간 조율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생생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서로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제안들이 있다.

- 당신들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서로 동의하라.
- 다른 싱글 선교사들과 결혼한 선교사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두 사람이므로 모든 일에 함께 초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라.
- 만일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을 때는 함께 사는 동료가 허락했더라도 그 초대를 마음 놓고 거절해도 괜찮다. 그럴 때 당신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
- 당신들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동의 정체성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해라.
- 정기적으로 매주 한번은 각자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점검하라. 필요한 만큼 조정하라
- 만일 두 사람 사이에서 상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당신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를 불러라(마18장).
- 선교사들은 많이 이동하므로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도 일시적임을 기억하라. 유연성이 필요하다.
- 아무리 바빠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당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잠재적 위험

두 선교사가 동성애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 기혼자와 독신자,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고립과 외로움의 결과로 동성인 동료와 함께 사는 독신 선교사

는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배타적인 관계는 소유욕이 되고, 성적 요소를 포함한 신체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포옹은 위안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동성애 행위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최악된 관계가 되기도 한다.

비록 성경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 간음이나 성적 부도덕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두 남성이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기 에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로마서 1장 26-27절에서 두 남성의 동성애 관계가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두 여성이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본문은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 정욕이 불붙듯 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두 남성 또는 두 여성 사이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두 여성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 첫째, 대부분의 선교지에는 싱글 남성보다 싱글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남성 커플보다는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여성 커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동성애의 가능성이 더 많다.
- 둘째,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들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문란하다. 게이는 전형적으로 열에서 스무 명의 다른 남자와 몇 번의 성적 관계를 갖는다. 레즈비언은 전형적으로 하나 또는 다른 몇 명의 여성들과 많은 성적 관계로 더 오래 지속 되는 관계를 형성한다.

비록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실제로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란, 죄책감, 그 관계 자체는 신중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성적 끌림과 성적 행위에 관해서 유혹과 죄 사이에서 분별해야만 한다.

만일 어떤 동성애 행위가 일어난다면, 하나의 최악된 행위인지, 아니면 게이나 레즈비언의 삶의 형태 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일회적인 동성애 행위가 남성에게는 성욕이 최고조인 청소년 시기에 자주 발생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실험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성욕이 최고점이 되는 시기가 더 늦어 지고 실험적인 동성애 경험이 늦은 나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

비록 그러한 행동이 죄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사는 게이 나 레즈비언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동성애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일이 실행되어야 한다.

- 연루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 행위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 해야 한다.
-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러한 기회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두 사 람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의 변화이다.
- 같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함께 살지 말아야 한다.
- 두 사람 모두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그들을 책임지고 붙들어 줄 누군가 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가능한 일

두 명의 독신 선교사는 같은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지니 로커비스티븐슨(Jeannie Lockerbie Stevenson)은 그녀의 책, By Ones & by Twos을 25년 이상 한 가정에서 함께 한 그녀의 친구에게 헌정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